무연고자 마지막 가는 길 지키는 지자체 '끝장 복지'

광주 자치단체 독거노인·장애인 '공영장례 제도' 확산

서구 올 1월 시행 17건 신청
올들어 6건 장례 치러줘
남·북구도 조례 제정 운영 준비

고독사(孤獨死)한 주민의 장례를 자치단체가 치러주는 '공영장례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생전에 외로움에 시달리던 독거 노인, 장애인 등이 숨지면 곧바로 화장터로 보냈던 과거와 달리 주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조촐한 장례라도 치러주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는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영장례 제도에 주민 17명이 신청했으며, 내년부터 관내 독거노인 6000여 명을 상대로 공영장례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제도 운영 이후 각 동(洞) 주민센터, 이웃들과 함께 6건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서구가 추진하는 공영장례 제도가 주민들 호응 속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구와 북구도 조례를 제정하고 공영장례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서구에서 치른 첫 공영장례 대상자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학생 딸을 두고 간 40대 여성이었다. 지난 12일에는 평생을 홀로 살아온 최모(76)씨가 지병으로 숨을 거두자 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이 함께 장례를 치러줬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씨는 암 투병 중이던 올 여름 서구에 공영장례를 신청했었다.

암 투병을 하던 최씨는 생전에 작성해둔 장수노트(임종노트)에 "(내가 죽거든) 가지고 있는 현금 40만 원은 금호동 주민센터에 맡깁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주십시오"라고 쓴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장수노트는 주변에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등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자신의 장례절차나 방식, 초대할 사람, 유품 처리,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등을 적도록 한 일종의 임종노트다.

공영장례 신청 대상자는 사망 당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인 탓에 장례를 독자적으로 치르기 힘든 사람들이다. 서구는 공영장례 1건당 15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

서구는 공영장례 시행에 들어갈 당시 고독사 우려가 큰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장수노트 1000권을 배포했다. 공영장례 운영과 함께 서구가 장수노트 제도 시행을 병행한 것은 독거노인들에게 사전에 공영장례 신청을 유도하면서 그들에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윤종성 광주시 서구 복지계장은 "공영장례와 장수노트 사업을 보다 세심하게 진행해 독거노인을 비롯한 주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데 서구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거노인은 광주에 3만7000명, 전남에 11만7000여 명이 있으며 인구 노령화에 따라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공영장례 제도는 지난 2007년 섬이 많은 신안군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자, 기초수급자의 경우 섬이 많은 신안에서는 장례식장을 찾기 힘들어 육지인 목포, 무안 등으로 옮겨가 장례를 치러야하는 탓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고 부족한 정부 장례지원금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보태면서 공영장례 제도가 시작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7월 29일 광주시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구청 공무원들과 이웃 주민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40대 여성의 발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고인에게는 중학생 딸 말고는 연고자가 없어 서구청이 장례를 치렀다. 〈광주시 서구 제공〉

65세 이상 노인 4명중 1명 사회 활동 없는 '고립 상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사회적 활동이나 지원이 없는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4'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1명은 취업이나 단체 참여,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원이 전혀 없는 '완전 고립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고립 상태'인 노인도 100명 중 15명가량이었다.

전체 노인 4명 중 1명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나이가 많거나 미혼 혹은 이혼한 경우 노인의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았다. 85세 이상에서 '완전 고립'이나 '거의 고립'된 비율은 39.0% 수준이었다. 미혼자 집단에서는 55.7%, 이혼자 집단에서는 47.8%였다.

한국인은 가족과 친척, 친구 등 지인은 신뢰하지만 이웃은 잘 믿지 못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95.5%,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에 대한 신뢰도는 84.6%였으나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61.2%였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12.7%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로 OECD 25개국 중 12번째로 낮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6년만에 첫 與의원 탄생 광주·전남 일당 독점 깨져

'격랑 2014' 이슈 진단

④순천·곡성 유권자들의 반란

7·30 재보선 이정현 승리
정치권 지역구도 타파 새지평
새정치 텃밭 민심 이반 '경고'

2014년은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치뤄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온 해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광주·전남에서의 '일당 독점'체제가 더 견고해진 반면 7·30 보궐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 독점에 대한 '민심 이반'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순천·곡성 유권자들의 반란=지난 7월30일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정현 의원은 당시 6만815표, 49.43%를 득표해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4만9611표, 40.32%)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의원의 당선은 7·30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혔다.

이는 지난 1988년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구제로 전환된 이후, 26년 만에 광주·전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의 심장이자, 새누리당의 불모지로 여겼던 전남지역에서 이 의원의 당선은 지역구도 타파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의 그동안 노력도 높이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이 의원의 당선 배경에는 순천·곡성지역 유권자들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민심 이반'도 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사실상 지역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차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 경선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서갑원 전 국회의원으로 나뉘어진 정치세력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심 이반' 현상 두드러져=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민심 이반 현상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 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광주 광산을 송환기 후보를 제외한 전남지역 3곳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비롯해 나주·화순 김종우 후보가 22.20%의 득표율을,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중효 후보는 18.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17~19대 총선 결과 광주·전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린 여당 후보는 3명(정용화·김광영·김문일)에 그쳤지만, 대부분이 10% 초반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투표 결과는 일당 독점에 지친 유권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앞서 치러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터져나온 공천 논란과 지역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연이은 전략공천 등이 반감을 불러온 것으로 보이며, 세월호 참사 등 정국 운영에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데 대한 실망감이 표심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 지방의회 독식=6·4지방선거에 앞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하면서 사실상 광주·전남 지방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식했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면 정당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양당이 경쟁하면서 좋은 인물을 공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양당의 합당으로 결국 '일당 독점'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특히 안철수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고 지원 유세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모두 싹쓸이 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권일기자 cki@